

김도영 '40홈런-40도루'

양현종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수호신 정해영 '구원왕'

# “이제는 개인 타이틀 정복이다”



김도영



양현종



정해영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정규시즌 우승 주역들, 잔여 6경기서 대기록 축포 쏜다



올 시즌 대권을 노리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각종 신기록 수립을 노린다.

지난 17일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은 KIA는 이제 남은 정규시즌 6경기에서 풍성한 기록 잔치를 꿈꾸고 있다.

KIA는 23-24일 삼성, 25일 롯데 (이상 홈 경기), 27일 한화 (대전), 28일 롯데전 (사직)과 22일 우천 취소로 추후 편성될 NC전 홈 경기 등 총 6게임이 남아 있다.

먼저 '슈퍼스타' 김도영의 40(홈런)-40(도루) 기록 달성이 가장 큰 관심사다.

22일 현재 37(홈런)-39(도루)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3홈런, 1도루만 추가하면 KBO리그 역대 두 번째이자 국내 선수 최초로 40-40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물론 대기록 달성의 관건은 홈런이다.

6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때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물어치기에 능한 김도영이 컨디션만 좋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다.

지난 16일 kt와의 경기에서도 2개의 타구를 담장으로 넘기며, 주춤하던 '40-40' 달성 기대감을 높였다.

을 끌어올린 바 있다.

이미 김도영은 2009년 김삼현(36개)을 넘어 역대 타이거즈 국내 타자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40개를 치면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가 남긴 타이거즈 역대 타자 시즌 최다 홈런과 타이틀이 이룬다.

또, 아울러 1득점만 추가하면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앞서 김도영은 지난 19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올 시즌 135번째 득점을 올리며, 2014년 서건창 (현 KIA)이 넥센 히어로즈에서 작성한 최다 득점 기록과 타이틀을 이룬 상태다.

KIA 마운드의 대들보 양현종도 KBO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쓰게 된다.

올 시즌 166이닝을 기록 중인 양현종은 다음 등판에서 4이닝 이상만 던지면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타이틀을 보유한 상태지만, 더 나아가 10년으로 늘릴 전망이다.

김도영의 40-40 기록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지만, 그의 기록은 인적미달의 엄청난 업적이다.

선발 투수의 책임과 의무를 상징하는 지표인 투구 이닝에 큰 애착을 드러낸 양현종은 오는 23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의 금자탑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30대 후반의 류현진 (한화 이글스), 김광현 (SSG 랜더스), 양현종 좌완 트로이카 중 양현종이 올해 가장 꾸준한 성적을 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으나 양현종은 28경기에 등판하며 11승을 올리며 팀 마운드의 중심을 묵묵히 지탱했다.

시즌 최다 세이브를 작성한 마무리 투수 정해영도 구원왕에 도전한다.

30세이브를 올린 정해영은 2위 삼성의 오승환과는 3개 차이를 두며, 이 부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올해 정해영은 지난 2021년 마무리 보직을 맡은 이래 통산 세 번째로 한 시즌 30세이브를 작성했다. 여기에 최연소 통산 100세이브 신기록까지 세우는 등 리그 대표 소방수로 성장했다.

남은 경기에서 세이브를 더 수확해 이 부문 1위를 지키면 타이거즈 선수로는 1998년 임창용 이후 26년 만에 구원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주홍철 기자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지난 21일 열린 브렌트퍼드와의 EPL 5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전반 28분 자신의 어시스트로 역전 골을 터뜨린 브레넌 존슨과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손흥민, 브렌트퍼드전 '2도움'...개인 통산 100호 도움

# 토트넘 역대 1위 68도움 '-4'

'캡틴'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구단 통산 최다 도움(88개) 달성에 4개 차로 다가갔다.

손흥민은 지난 21일 열린 2024-2025 EPL 5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3-1 역전승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1로 맞서던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역전골을 도운 손흥민은 후반 40분에는 제임스 매디슨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면서 2개의 도움을 완성했다.

필터 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EPL 무대에서 개인 통산 64개의 도움을 쌓았다.

EPL 공식 '스태츠 센터'에 따르면 1992-2004년 토트넘에서 활약한 공격수 대런 앤더튼이 68개의 도움을 올려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손흥민이 64도움으로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앤더튼의 기록에 4개

차로 다가갔다. 손흥민의 도움 기록은 EPL 역대 도움 랭킹 '공동 18위'에 해당한다.

은퇴한 라이언 그스가 162개의 도움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케빈 더브라워너 (맨체스터 시티·113개)가 2위에 올라가 있다.

손흥민은 개러스 배리와 앨런 시어리(이상 은퇴)와 함께 공동 18위에 올라가 있다.

한편, 유럽 이적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마크트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2도움을 추가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개인 통산 100호 도움도 작성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통산 88도움(EPL 64도움+컵대회 13도움+유럽축구대회 11도움)을 쌓았고, 앞서 독일 레버쿠젠에서 통산 11도움(분데스리가 7도움+컵대회 1도움+유럽축구대회 3도움), 함부르크에서 통산 3도움(분데스리가 3도움)을 올렸다.

/연합뉴스

## 차세대 장타여왕 문정민, 생애 첫 승

### 대보하우스디오픈 우승 신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손꼽는 장타자 문정민이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문정민은 22일 열린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했다.

이준이와 지한솔을 2타 차로 제친 문정민은 KLPGA 투어에서 63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따냈다.

우승 상금은 1억8천만원.

이번 우승으로 문정민은 윤이나, 방신실, 황유민 등과 장타력을 앞세운 신세대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다.



문정민이 22일 열린 '대보 하우스디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KLPGA 제공>

시즌 중반까지 갑상샘 항진증과 싸우며 힘겨웠던 지한솔은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며 OK저축은행 댄스오픈에 이어 2주 연속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 광주FC, 파이널A '꿈은 사라지고...'

## 제주전 0대2 충격패...광주FC 김윤호,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 빛바래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 광주FC가 브라질계 제주 수비진을 뚫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의 파이널A 진출이 무산됐다.

광주는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12024 3라운드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승점 40점(13승1무17패)에 그쳤다. 6위 FC서울과의 승점도 7점차로 벌어지면서 남은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둬도 상위승리에 오르지 못한다.

K리그1 12개 팀이 33라운드 리그 경기를 펼쳐 1-6위는 파이널A로 7-12위는 파이널B로 분리돼 팀 별로 5경기를 더 치른다.

상위승점진출에 사활을 건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승리를 노렸다.

광주는 신창무, 김윤호, 정지훈, 정호연, 이강현, 김한길, 이민기, 변준수, 안영규, 김진호, 김경민을 선발로 투입, 초반부터 빠른 축구를 제주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우승행투 속 광주는 전반 20분 정지훈과 김윤호를 빼고, 베가와 가브리엘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광주는 경기를 주도했지만 제주의 골문

을 열지 못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희균, 후반 9분에는 아사니까지 투입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광주는 후반전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상대 수비에 막혀면서 고전했다. 답답한 흐름은 계속됐고 결국 후반 25분 제주 카이냐에게 실점하면서 0-1로 끌

려갔다. 빠르게 동점골을 넣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제주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동점골을 노리던 광주가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며 추가골을 내줬다.

광주는 후반전 추가시간 서진수에 게 쐐기골을 내주면서 0-2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선발 출전한 준프로 김윤호가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기록을 경신했다. 구단 최초로 준프로 선수로 등록된 김윤호는 17세 4개월 17일의 나이로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이는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 기록이며 종전 기록은 2022년 김지수(당시 성남FC)가 세운 17세 4개월 26일이다. /박희중 기자

## 축구대표팀 감독선임 논란 국회로...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문광위 출석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축구의 핵심 인물들이 국회의원을 앞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및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자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열리는 현안 질의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3명이 증인으로 국회에 간다.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

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광위는 또 김대업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자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열리는 현안 질의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가장 큰 논란을 빚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거로 보인다.

/연합뉴스